

'헌집 대신 새집'...시청자 마음 잡을까?

시청률 9% '백년손님' 폐지 비탄 쇄도
SBS "리스크 있지만 방송사 사정있다"
9월엔 KBS도 'VJ특공대' 없애 몰매
일방적 결정, 시청자 마음 돌릴지 의문



SBS 예능프로그램 '백년손님'이 9월 29일 방송을 끝으로 9년 만에 폐지됐다. 앞서 KBS 2TV 'VJ 특공대'도 9월7일 18년간 이어온 방송의 막을 내렸다. 이들은 오랜 기간 방영하며 해당 방송사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정보다 변화를 선택한 방송사 측 결정으로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백년손님'은 이미 고별방송까지 했지만, 현재까지도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다. 자극적인 내용이나 웃음은 없었지만 사위와 장모·장인 간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담아 소소한 재미를 제공했다. 젊은 시청자

를 대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예능프로그램'과 차별화한 내용으로 중·장년층에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편성도 목요일에서 금요일, 다시 토요일로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시청자의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대개 프로그램 폐지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요소는 시청률이다. '백년손님'은 화려한 이름값의 출연자 없이도, 8~9%대의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해 '가성비 높은 프로그램'으로 통했다.

2000년 5월5일 방송을 시작했던 'VJ 특공대'는 장르를 불문해 각종 정보와 재미는 물론 다큐멘터리 구성으로 잔잔한 감동까지 안겼다. '맛집 홍보' 의혹을 몇 차례 받기도 했지만 사람 냄새나는 이야기에 힘입어 18년간 장수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방송사는 새 예능프로그램이 성공하리란 보장도 없이,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이던 효과 프로그램을 왜 폐지했을까. 이들 프로그램 폐지를 아쉬워하는 시청자만큼

이나 위협요소를 알고도 폐지를 결정한 제작진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시청자의 호불호가 크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안정적인 방송이 가능했다. 하지만 방송사 측은 장수프로그램이 제작진의 실험성과 도전의식을 가로막고 현 상태에 안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장수 프로그램으로 당장 눈앞의 성과는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SBS 예능국 한 관계자는 1일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시청자의 반응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송사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수프로그램의 폐지 리스크가 크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것도 좋은 방향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청자에게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해시태그 컷



블랙핑크 제니 '넘사벽 분위기'

결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가녀린 몸매를 드러낸다. 뒷부분 장식이 독특한 가죽 소재의 원피스를 입은 제니는 앙상해 보일 정도로 마른 체형 때문에 옷이 헐렁해 보인다. 그래도 분위기만큼은 '넘사벽'이다. 아무렇게나 찍은 듯한 사진도 특유의 눈빛과 포즈로 화보처럼 느껴지게 한다. 팬들은 "분위기 갑"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낸다.

백슬미 기자

#스포츠동아 #블랙핑크 #제니 #슬렌더몸매

내마음에 작품하나

조승우-영화 '피아니스트'

나치 만행 온몸으로 그려낸 유대인 조승우 "나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삶은 위대하다."

배우 조승우는 영화 '피아니스트'에 대한 감상을 이렇게 남겼다.

'피아니스트'는 1939년 2차 대전 시기 독일 나치 치하의 폴란드 바르샤바를 배경으로 한 영화. 유대인이 겪는 지옥 같은 현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 끝내 살아남으려는 한 인간이 온몸으로 투쟁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유대계 폴란드인으로 자신 역시 어린 시절 나치의 폭력과 전쟁의 참화를 경험한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2002년 연출한 작품이다.

배우 애드리언 브로디가 음악이 세상의 전부였던 유대계 피아니스트 블라디슬로프 스펠만을 연기했다. 극중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 텅그러니 홀로 남겨진 채, 극단적인 위태로움에 끊임없이 맞닥뜨리면서도 결국 살아남아 삶을 이어나가려는 한 인간의 처절함을 온몸으로 그려냈다. 이 영화로 2003년 제75회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품에 안으며 나치의 만행과 전쟁의 비극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영화 '택시운전사'로도 낮익은 토마스 크레치만만 독일군 장교 역으로 출연해 극중 애드리언 브로디와 미묘한 인연을 맺으며 이야기에 동참했다.

조승우는 '피아니스트'를 보며 "내가 저 시대에, 저 나라에, 블라디슬로프 스펠만과 같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그런 삶을 겪었다면, 그리고 끈질기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결국 삶은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조승우는 "삶은 그만큼 위대하고 질긴 것이다"는 메시지를 안았다. 이어 "인간은 그만큼 강한 존재"임을, 이 영화는 되새기게 해주었다고 덧붙였다.

윤여수 전문기자

편집 | 김창조 기자 minigram@donga.com

유족들 극적합의...영화 '암수살인' 휴~

호평·유족 상영금지소송·막판 취하
열흘간 우여곡절 끝내고 내일 개봉

영화 '암수살인'이 열흘간의 우여곡절 끝에 3일 예정대로 개봉한다.

개봉 전 시사회를 통해 호평을 이끌어내면서 기대를 높인 김윤석·주지훈 주연의 '암수살인'(감독 김태균·제작 필름295)은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 영화 속 실화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으로부터 상영금지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자신들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유가족은 "영화로 인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영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실화를 다루면서도 관련 인물들을 헤아리지 않은 제작진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영화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으로도 확산됐다. 긴박한 상황 속에 유가족과 만난 제작진은 사과와 함께 제작 의도를 설명했고, 결국 이를 받아들인 유가족은 1일 소송 취하했다.

'암수살인'은 2007년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살인사건을 다룬다. 감옥에서 7건의

살인을 고백한 살인범(주지훈)과 그의 자백을 믿고 끈질기게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김윤석)의 이야기다. 비교적 최근 벌어진 실화를 다루는 제작진은 "오해된 암수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제기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제작진이 주목한 암수살인은 실제 벌어졌지만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하거나, 용의자 신원파악이 어려워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를 뜻한다. 이에 주목한 제작진은 자극적인 사건 묘사대신 사명감을 가진 형사의 신념을 묵직하게 그린다. 때문에 '암수살인'은 세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실종자와 피해자를 향한 진혼곡과도 같은 작품이다. 개봉 전 시사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호평이 따랐다.

제작 의미가 퇴색될 뻔한 위기를 맞은 '암수살인'은 유가족의 소송 취하로 일단 고비는 넘겼다. 유가족 법률대리인인 유안아이파트너스 역시 1일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제작 취지에 공감한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영화에 대한 평가는 온전히 관객의 몫으로 남게 됐다.

이혜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현장.jpg

낮선 여인의 향기...소녀시대 출신 '우리' 맞아?



데뷔 11년 만에 솔로가수로 도전하는 소녀시대 유리가 5일 KBS 2TV '뮤직뱅크'를 시작으로 이틀날 MBC '쇼! 음악중심', 7일 SBS '인기가요' 등 음악프로그램에 잇달아 출연하며 본격 활동에 나선다. 솔로 데뷔곡 '빠져가는 오리엔탈풍의 전통적 요소가 가미된 경쾌한 리듬과 캐치한 훅 멜로디가 인상적인 팝 댄스곡. 유리의 아름다운 충성을 강조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무대를 만날 수 있다. 유리의 첫 솔로앨범 '더 퍼스트 신'은 4일 발매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사진제공 | SM엔터테인먼트

한류스타들, 해외 팬덤 속으로 더 깊이!

공유, 홍콩OGV에 자신 이름 단상영판
현빈 등 170명 스타들, 태극자선비자회

해외 팬덤과 함께하려는 한류스타들이 더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단순한 기부와 선행에 그치지 않고 해외 팬들의 정서에 깊숙이 다가가기 위한 움직임이다.

최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연설을 한 그룹 방탄소년단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함께 세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을 위한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해외 팬들 역시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스타가 이끄는 공익적 행보를 함께하고 있다. 이번 유엔본부 연설 역시 그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리더 RM(김남준)은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 어린 연설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콩에서 특히 인기가 높은 공유는 최근 현지 멀티플렉스 극장인 OGV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영판의 문을 열었다. 이미 영화 '부산행' '밀정'으로 현지에 두터운 팬덤을 구축한 공유는 이 상영판에서 자신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트를 선보인다. 무

엇보다 상영관에서 얻는 수익의 일부를 현지 독립영화 제작 등에 쓴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170여명의 한국 스타들이 참여하는 해외 자선 바자회도 펼쳐진다. 장동건, 현빈, 차태현, 김남주, 김희선, 송중기, 박보검 등 연기자들과 그룹 신화, EXO, 트와이스, 샤이니, 레드벨벳, 세븐틴, FT아일랜드 등 케이팝 스타들이 자신들의 애장품을 선보이는 무대다. 한태수교 60주년을 맞아 주태 한국대사관과 태극 문화부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과 함께 여는 이번 바자회는 6일부터 7일까지 방콕 센트럴월드에서 문을 연다. 수익금은 물론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모은 성금을 현지 청소년 시설을 위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 같은 무대는 보기 드문 것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스타들의 의지가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최근 한류스타들은 해외 팬덤과 함께 성장해가며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이전의 단순한 기부 등 선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외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기 부여로써 문화를 나누려는 한류스타들의 움직임이다.

윤여수 전문기자 tadada@donga.com